

발행인 정인보

발행일 2022년 10월 1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 집 교육과정부

편집위원 김금순(안동부설초등학교)

김효주(영천여자중학교)

정용수(장성초등학교)

김필곤(장성초등학교)

모성현(월포초등학교)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10월의

positive Gyo6 freecycle 2022 Oct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좋은Gyo6
나눔

'10월 독도의 달 특집'

"독도를 품은 경북, 독도 교육의 싹을 틔우다"



독도 풍경 전 울릉고등학교 교장 박재형

SUMMARY | 요약

01 —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독도

지난 9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개정 교육과정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11월 총론이 발표되었고, 올해 9월~10월 새 교육과정 시안 공개와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를 통해 확정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역사 과목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02 — 독도 교육에 대한 고민, 함께 해요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의 울릉군에 소속된 섬이다. 당연히 경상북도 교육청은 독도 교육에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활발한 독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과 예산의 부족, 내용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 과정을 풀어본다. 생각보다 교육과정 및 학교 활동 안에서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회는 많다. 독도를 품고 있는 경북에서 적극적인 독도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03 — 독도 프로젝트 수업

우리나라 지리, 역사에서 언급되는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독도'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지리 교사로서 가장 쉬워야 할 수업이 독도 수업이어야 하는데 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수업이다. 지리와 역사를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독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여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했던 독도와 관련된 상품 만들기, 지리·역사·음악 융합 수업을 소개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독도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알려져 있다.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공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이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가 울릉도 전도(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5년 전의 일이다. 이 의미를 기리기 위해 칙령 제41호 공표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한 시민단체에서 나왔고, 그 목소리가 퍼짐과 동시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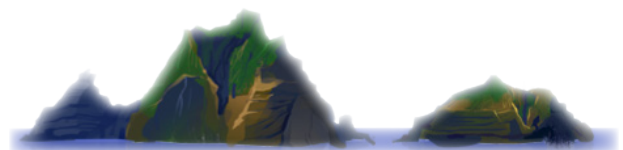
그리고 ‘독도의 날’이 끼어있는 10월이 되면 플래시몹 공연, 독도 그리기, 작문 대회 등 다채로운 독도 관련 행사가 여기저기서 펼쳐지게 되었다.

금년 10월에도 많은 독도 관련 행사가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동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개정 교육과정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11월 총론이 발표되었고, 금년 9월~10월 새 교육과정 시안 공개와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를 통해 확정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새 교육과정 시안 중 역사 과목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은 다음과 같다.

2022 과정	과목명	학년/ 선택여부
초등학교	사회(지역사)	3~4학년
	사회(한국사)	5~6학년
중학교	역사(세계사)	1~3학년
	역사(한국사)	1~3학년
고등학교	한국사1, 2	공동
	세계사	일반 선택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진로 선택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융합 선택



2015 과정	과목명	학년/ 선택여부
초등학교	사회(지역사)	3~4학년
	사회(한국사)	5~6학년
중학교	역사(세계사)	1~3학년
	역사(한국사)	1~3학년
고등학교	한국사	공동
	세계사	일반 선택
	동아시아사	일반 선택

2015년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비하면 고등학교 한국사가 1, 2로 나뉘었고 동아시아사 교육이 다변화된 것이 보인다.

■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과 독도

새로운 교육과정 역사 과목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독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 중학교 역사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과목에서의 독도 교육은 2015년의 필수 사항에서 2022년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 개혁 운동」 항목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였음을 파악한다”는 학습목표와 학습요소로서의 ‘독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제가 독도를 강제로 점유하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불법성을 판단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성취기준도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2022년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단지 「조선 사회의 변동」 항목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독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숙종 대 전개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활용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과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조선의 영토 인식이나 양란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독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015년에는 「현대 세계의 전개」 항목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학습목표와 학습요소로서의 독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유의 사항에도 독도가 적시되어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조사·발표하는 모둠 수업을 통해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하여 자료 조사의 정확성, 주장의 명료성, 논리 전개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22년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B) 고등학교 한국사/한국사 1, 2

2015년 한국사에서 2022년 한국사 1, 2로 나뉜 한국사 교육에서는 독도를 적시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에는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항목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하여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학습 요소로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이 명시되어 있었다. “독도 학습시 독도 관련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독도의 학습 내용뿐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반면 2022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전혀 없다.

또 2015년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요소로서 “독도 수호”를 명시했다.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내용 역시 2022년에는 없다.

(C) 고등학교 동아시아사/동아시아 역사 기행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동아시아사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동아시아사 역사 기행)로 바뀐 동아시아사 역사 교육에서도 독도를 적시한 교육에 대한 요구는 사라졌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항목에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는 학습 목표하에 학습 요소로서 “독도”가 명시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중·일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역사 현안’의 일례로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요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노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화해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도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사 현안’ 교육에 대한 요구는 2022년에도 이어지지만 내용은 매우 간략해졌다. 「평화와 공존의 현장에서 만난 역사」라는 항목에서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 양상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고,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학습목표만 제시되었다. 동아시아 영토, 역사 갈등의 사례로서 독도가 적시되어 있는 2015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동아시아에 ‘역사 현안’이 존재하는 원인과 사례 및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2015년 성취기준 해설에 비해 2022년 성취기준 해설도 간략하다.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갈등이 제국주의 침략과 군부독재,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역사 갈등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라고만 되어 있다.


■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독도 교육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은 2015년에 비해 독도를 적시한 교육의 요구가 모두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선택적으로 조선 시대의 안용복 활동을 소재로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 고등학교 한국 지리에서도 독도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필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가 적시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생각도 없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교육 환경은 많이 달라 외향상의 단순 비교로는 교육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교육에서의 독도 교육의 공간을 사교육이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는 있다. 독도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문화의 형태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 학교 현장 외에도 지자체, 각 지역 전시관, 민간 단체 등에서 독도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곳에서 독도 교육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교육 효과가 동일할 수는 없다. 교과서를 통해서 논리적·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나 행사·전시 등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교육을 통해 교과서를 통한 독도 교육의 공간을 행사·전시 등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붙임]

(A) 중학교 역사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개편안
<p>(7)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 개혁 운동 [9역07-05]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u>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했음을 파악한다.</u></p> <p>(가) 학습요소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 의병 운동, 애국 계몽 운동,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독도</p> <p>(나) 성취기준 해설 [9역07-05] 아울러 이 시기에 일제가 독도를 강제로 점유하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불법성을 판단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p>	<p>(12) 조선 사회의 변동</p> <p>(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종 대 전개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과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조선의 영토 인식이나 양란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독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p>(8) 세계 대전과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9역08-04] 전시 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파악한다.</p> <p>(가) 학습요소 전시 동원과 인권 유린: 징용, 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p>	
<p>(9) 현대 세계의 전개 [9역09-05]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p> <p>(가) 학습요소 공존을 위한 노력: 독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동북공정</p> <p>(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조사·발표하는 모둠 수업을 통해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p> <p>(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논박하는 글쓰기 수업을 실시하여 자료 조사의 정확성, 주장의 명료성, 논리 전개와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p>	

(B) 고등학교 한국사/한국사 1, 2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개편안
<p>(5)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10한사05-04]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하여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p> <p>(가) 학습 요소 독도와 간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 협약</p> <p>(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 학습 시 독도 관련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p> <p>(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뿐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한국사2)</p> <p>(1)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모색 [10한사2 01-03] 일제의 전시 동원이 민중의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p> <p>(3)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를 위한 노력 [10한사2 03-0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파악한다.</p> <p>(가) 성취기준 해설 [10한사2 03-03]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해결 노력을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p>
<p>(6)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10한사06-03]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전시 수탈과 우리말 사용 금지와 같은 민족 말살 정책을 파악하고,</p> <p>(가) 학습요소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국내외 민족 운동: ..., 전시 수탈, 일본군 '위안부'</p>	
<p>(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0한사07-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p> <p>(가) 학습요소 현대 세계의 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공정</p> <p>(나) 성취기준 해설 [10한사07-04]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게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 문제에 대한 역사적 탐구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p>	

(C) 고등학교 동아시아사/동아시아 역사 기행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개편안
<p>(5) 오늘날의 동아시아 [12동사04-03]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p> <p>(가) 학습요소 갈등과 화해: 독도, 센카쿠(다오위 다오), 북방 도서, 난샤 군도, 시샤 군도, 일본의 식민 지배 미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고노담화, 동북공정</p> <p>(나) 성취기준 해설 [12동사05-03] 동아시아에는 과거사 정리, 영토 분쟁,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놓고 한·중·일 간, 일본과 러시아 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역사 현안'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역사 현안'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중·일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역사 현안'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중국의 고구려사 등 고대사 왜곡 문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영토 분쟁 등을 사례로 각각의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 현안'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노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화해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한다.</p>	<p>(4) 평화와 공존의 현장에서 만난 역사 [12동역04-03]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 양상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고,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p> <p>(가) 성취기준 해설 [12동역04-03]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갈등이 제국주의 침략과 군부독재,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역사 갈등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p>



독도 교육에 대한 고민, 함께 해요

이장훈 봉현초등학교 교사

10월, 독도의 달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에 기인하여 ‘독도의 날’도 더불어 기념하고 있다.

이에 10월이 되면 관련 단체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독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4월 독도 주간과 10월 독도의 달에 반짝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독도는 우리 경상북도의 울릉군에 소속된 섬이다. 당연히 경상북도교육청은 독도 교육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4, 5학년용 <독도> 교재 개발 보급, 초·중·고 100여 개의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 개발과 전국화 사업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활발한 독도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시간이 부족해요

“진도 나가기 바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확보해 놓은 10시간도 독도 교육에 온전히 쓰진 못하고 있어요.”

다들 공감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연계, 교과 연계에서 답을 찾아보자.

▲ 학교 행사와 연계하자

학교 또는 학년 행사 진행할 때 독도 프로그램을 넣어 보자. 큰 힘 들이지 않고 행사도 풍성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 수학여행: 일정에 <독도체험관> 관람 넣기

서울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서대문구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둘러보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된다.



■ 운동회: ‘독도 OX 퀴즈대회’ 열기

학생, 학부모가 함께 독도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



■ 학예회: ‘독도 플래시몹’ 공연하기

틈틈이 연습했던 독도 플래시몹 댄스를 부모님들 앞에 선보이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 학부모 행사: 독도 교육 결과물 전시하기

쉬는 시간 자연스레 부모님들이 작품을 둘러보신다.
독도를 주제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 영어체험: 원어민에게 독도 알리기

영어체험센터, 영어마을 입소 시 학생들에게 독도 알리기
모둠별 과제를 주면 잘 해결한다.



■ 1박 캠프: 독도캠페인, 독도 풍등 날리기

캠프를 들어가면 쉬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주어진다.
이런 잠깐의 시간을 잘 활용해 보자.



▲ 교과 연계를 고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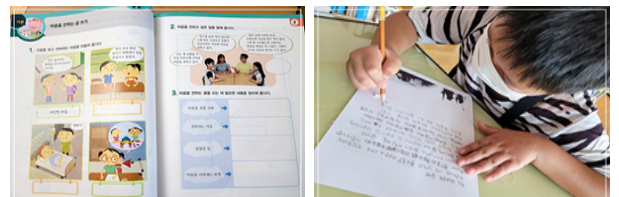
시간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아 보기도 하고, 활동 내용을 독도를 주제로 바꾸어 수업해도 좋다.

4학년 독도 관련 단원 및 교과 연계 가능 차시 분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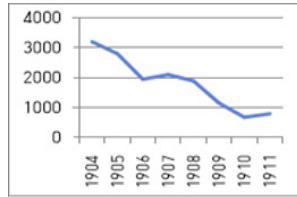
교과	교과 내용 → 통합(재구성) 방향
국어 4-1	• 「독도를 다녀와서」 읽고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독도의 생태계
국어 4-1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만화 영화 보기 → 「조선 시대 민간외교가 안용복」 영상에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사회 4-1	•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 지역 위치 찾아보기 • 방위표에 따라 위치 말하기 →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사회 4-1	•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 독도 모형 만들기를 통해 등고선 이해하기
경·생	• 울릉도 여행 계획하기 → 울릉도와 독도 여행 계획 세우기
경·생	• 인물 홍보 포스터 만들기 - 안용복 예시 → 독도 관련 인물 알리는 자료 만들기
경·생	• 경북의 공공 기관의 하는 일 조사하기 - 울릉군: 독도박물관, 포항시: 포항 해양경찰서 예시 → 독도와 관련된 경북의 공공 기관 조사하기
국어 4-2	•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 독도경비대에 고마운 마음 전하는 편지 쓰기
국어 4-2	• 전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 → 독도 관련 인물 책 읽고 소개하기
국어 4-2	• 글을 읽고 독서감상문 쓰기 → 독도 관련 책 읽고 감상문 쓰기
과학 4-2	• 화산이 아닌 산과 비교하여 화산의 특징 알아보기 → 독도와 울릉도의 발생(화산섬의 형성)
수학 4-2	•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내기 → 일본의 연도별 감치포획량 그래프로 나타내기
체육	• 전통놀이 하며 여가생활 실천하기 → 독도를 주제로 윷놀이하기
미술	• 양감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 파채지 활용하여 독도 캐릭터 모빌 만들기
미술	• 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판본체 쓰기 → 판본체를 익혀 「독도 사랑」 쓰기
미술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그림 도구> 활용하기 → 독도 사진에 여러 가지 효과 주어 표현하기

교과	국어 4-2 가
단 원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주 제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편지 형식에 맞게 마음이 담긴 글쓰기
재구성	독도경비대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지 도 내 용	1. 독도경비대의 생활이 담긴 동영상 시청 (독도경비대에 대한 이해 돕기) -자료: https://youtu.be/SBbyVjjR614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원입니다.) 2.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 쓰기 3. 고쳐쓰기(점검): 글 내용, 고마운 마음 표현, 읽는 사람 마음 고려 등 4. 경비대에 쓴 편지 우편 발송하기



교과	수학 4-2
단원	5. 꺾은선그래프
주제	자료 조사하여 표와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내기
재구성	1900년대 초 일본의 독도에서의 강치포획량 조사하여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내기
지도내용	1. 일본의 강치포획관련 영상 시청 -자료(독도채널): (독도 강치 멸종의 비밀) https://youtu.be/TPuXw15xQnU 2. 1904년~1911년 연도별 강치포획량 3. 주어진 자료를 꺾은선그래프로 나타내기



교과	미술 4
단원	4. 양감과 질감이 가득
주제	양감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색한지에 휴지 넣어 양감 표현하기
재구성	양감이 풍부한 독도 캐릭터 모빌 만들기 -파쇄지 재활용하여 양감 표현하기
지도내용	1. 표현할 독도 캐릭터 선택하기 2. 코팅지에 유성펜으로 캐릭터 그리고 색칠 3. 경계선 따라 가위로 오려 내기 4. 스테이플러 마감, 파쇄지 넣어 양감 표현 5. 실 매어 모빌 활용하기



교과	미술 4
단원	7. 우리 글씨 판본체
주제	판본체의 비스듬한 획(ㅅ) 쓰기: 구슬 판본체의 굽은 획(ㅇ) 쓰기: 우리 강산
재구성	판본체로 '독도 사랑' 쓰기를 통해 비스듬한 획(ㅅ)과 굽은 획(ㅇ) 익히기
지도내용	1. 지난 시간에 익힌 굽은 획, 꺾은 획 연습하기: '독도' 쓰기 2. 'ㅅ' 쓰는 방법 익히기(획의 방향과 기울기, 접필 부분의 모양): '사' 쓰기 3. 'ㅇ' 쓰는 방법 익히기(한 번에 쓰기, 두 번에 나눠 쓰기): '랑' 쓰기 4. 판본체로 '독도 사랑' 쓰기



교과	사회 4-1
단원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주제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 - 등고선 모형 만들기
재구성	독도 모형 만들기 통한 등고선의 개념 이해
지도내용	1.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 2. 등고선에 대한 개념 알아보기 3. 독도 축소 모형의 제작 원리와 만드는 방법 4. 독도 축소 모형 만들기



학생들과 온라인 지도에서 독도를 찾아보고, 아래와 같이 직접 모형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독도 입체모형 만들기 프로젝트



1.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 캡처한 독도 영역 이미지들을 이어 붙입니다.
2. 등고선이 잘 드러나게 처리한 뒤 분할 인쇄(Posteriza)로 크게 출력합니다.
3. 폼보드 위에 출력한 등고선을 대고 뾰족한 도구로 따라 그립니다.
4. 열선 커터기로 폼보드를 등고선별로 차례로 잘라 냅니다.
5. 순서대로 쌓아 목공용 풀로 붙여 완성합니다.



<기타 교과 연계(재구성) 운영 사례>

■ 미술- 먹으로 그림 그려보기

(재구성 → 먹으로 독도 바위 표현하기)



■ 미술- 그림판 이용하여 그리기

(재구성 → 나만의 독도 티셔츠 도안하기)



■ 실과-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재구성 → 언플러그드 교육: 숫자 그림판)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교사인 제가 독도에 대해 잘 모르니까 독도 교육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독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독도 교육은 잘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전문가 또는 좋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보자.

▲ 독도와 친해 보자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 다양한 무료 연수가 있으니 활용하자.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 New찾아가는사이버독도교실(15차시)
- 동북아역사와독도바로알기(15차시)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 초급(10차시), 중급(10차시), 고급(15차시)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초급·중급·고급과정 안내

가장 먼저 해돋는 우리 땅, 독도!

독도교육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겼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급과정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중급과정

탐험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가 우리 땅인 까닭을
배웁니다.



고급과정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독도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독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오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재, 교구, 영상자료를 받거나
실시간 수업까지 가능하다.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국토 수호 정신 계승 교육>

대학 교수님 등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과 영토수호의 중요성 등 독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 독도재단의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원격 독도 바로 알기 교육>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으며, 현재는 교재와 수업자료 제공, 독도 홍보 버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 독립기념관의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 침탈의 시작은 독도. 수업 교재와 교구, 기념품 등을 보내오며, 줌 실시간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해 보자.



■ 독도바르게알기운동본부의 <독도문화체험>

독도 티셔츠와 버스 제공, 독도를 주제로 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독도전시관>

독도전시관에 가면 VR, 영상시청, 독도 입체 만들기, 독도신문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 박물관, 도서관 등의 독도 기획 전시

지역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독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으니 활용하자.



■ 독도 문에 대한 등 작품 공모

독도를 주제로 한 글, 그림, 서예, 사진, UCC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공모가 6월 중에 진행되니 참여해 보자.



■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행사 참여

2022년 전국화 사업으로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보자.

주소: <http://dokdoschool.gyo6.net>

- 온라인 독도 퀴즈쇼
- 독도 스피드 퀴즈대회
- 독도 콘텐츠(영상, 디자인) 공모전
-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
- 전국 독도 릴레이 마라톤 인증



예산이 부족해요

“학생들과 독도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론 수업으로 끝나니 흥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 별도의 학교 자체 예산을 마련하거나, 외부 예산을 받아 보자.

▲ 독도 관련 외부 예산을 지원받자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지킴이 학교>

(지원 규모: 100만 원, 전국 초·중·고 120개교, 지도교사 독도 탐방 기회 부여)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지킴이 동아리>

(지원 규모: 100만 원, 경북 초·중·고 100개)

▲ 독도지킴이 동아리 활동 예시

■ 중심가에서의 독도캠페인 및 결과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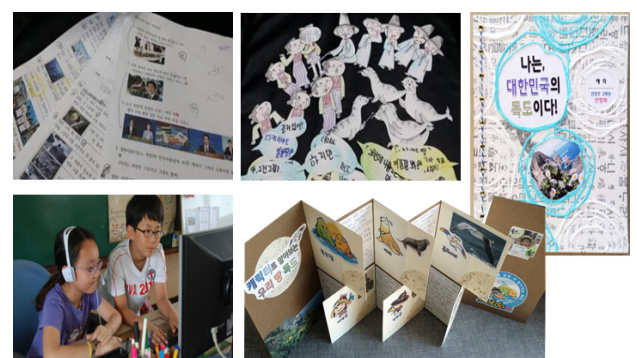
■ 독도를 주제로 한 종이모형만들기



■ 매월 전교생 대상 독도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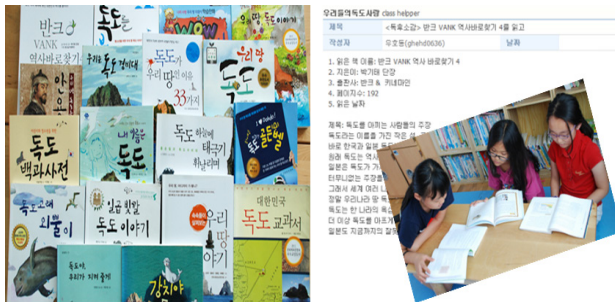


■ 독도 UCC, 독도 미니 북 제작





■ 독도 관련 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 독도 인물 점핑 볼/ 독도 부채 만들기



■ 독도 석고 모형/ 독도 에코백 만들기



■ 독도 연필꽂이/ 독도 슬라이딩 퍼즐 만들기



■ 독도 종이컵 도안, 홍보 장식물 만들기



■ 독도 머리띠, 독도 전광판, 독도 입체 꾸미기



■ 종 꾸미기, 독도 팔찌/ 버튼 만들기



■ 독도 오류 찾기 프로젝트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오류 수정해 주세요



JINWON <jgin@kgs.go.kr>
1090 <1090>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풍기북부초등학교에서 독도지킴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5학년 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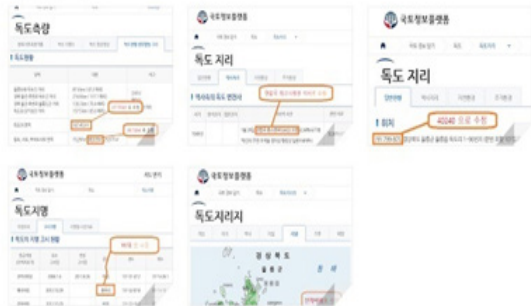
작년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독도 자료를 찾다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때 게시판에 수정해 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수정되지 않고 있어서 담당자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친구들과 찾은 것을 정리해서 보내니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 풍기북부초등학교 5학년 김진원 드림

첨부파일 5개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개선의견

» 전자기원마당 > 이용안내 > 홈페이지개선의견

경상남도교육청 독도교육 홈페이지 내용 수정해 주세요			
작성자	김진원	등록일	2020/07/15
첨부파일	경남도교육청독도오류.jpg (662 kb) [바로보기]		
내용	<p>안녕하세요, 저는 독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p> <p>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도교육> 홈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 <p>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행정구역

- ☎ 우편번호 : 799-805
-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외 100필지
- ☎ 도로명 주소
동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시부길
서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서도 주민숙소



독도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건강 대책 등 편의 제공과 독도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 경상도청은 2018.10월 사망하여 현재 살고 있지 않음



- 교구 제작업체 ○○○

체험달력 잘못된 독도 바위 이름 수정해 주세요



JINWON <jgin@kgs.go.kr>
doomso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풍기북부초등학교에서 독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5학년 학생입니다.

도움소에서 만든 <보물섬 독도 체험달력 만들기>를 동아리 시간에 활용했는데 독도 바위 이름이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이름을 아래와 같이 바르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넙적바위 - 넙적바위
보살바위 - 보살바위
삼형제바위 - 삼형제굴바위
동키바위 - 해녀바위
촛불바위 - 촛불바위
탱크바위 - 전차바위

촛불바위는 위치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독도 표석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바위가 촛불바위입니다.

즐겁게 독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 프로젝트 수업

손우형 길안중학교 교사

시공간은 연속체이듯이 지리와 역사는 분리해서 생각해도 안되고 분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리, 역사에서 언급되는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독도’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지리 교사로서 가장 쉬워야 할 수업이 독도 수업이어야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늘 어렵게 느껴 지는 수업이다.

18년 차이지만 매년 교단에 서는 것은 떨린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다. 의사보다 더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교사라고. 나의 표정, 나의 말씨, 나의 몸짓 모두가 학생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라틴어 어원이 ‘끄집어낸다’ 이듯이 난 ‘이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끌어 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지천으로 피는 꽃들이, 길가에 피는 꽃들이, 도로가에 피는 꽃들이, 꽃밭에서 피는 꽃들이 자신이 왜 이런 곳에서 꽃 피워야 하는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듯이 비록 작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 피우고 다른 꽃들(우리 예쁜 학생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독도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두 방향으로 수업의 맥을 잡았다.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는 ‘지리·역사와 함께하는 바리스타반’ 활동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상품 만들기, 또 다른 하나는 “지리·역사·음악 융합수업”이다.

융합수업 3차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1차시를 더하여 총 4차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 독도 관련 상품 만들기

동아리 활동과 더불어 해야 하기에 학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선정하고 동아리 시간에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우선 창제 동아리 바리스타반은 세계의 지리, 역사를 통해 커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것을 배우면서 진로활동과 연계한 길안중학교의 동아리이다.

바쁜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휴식의 의미로 자리한 커피는 TAKE OUT으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컵 홀더와 컵 캐리어는 빠질 수 없는 단짝이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가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컵 홀더와 컵 캐리어를 각자 만들어 보기로 했다.

“애들아. 우리 스타벅스에 싸이렌 로고를 뛰어넘는 이미지를 독도를 가지고 만들어 볼까? 커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시니깐 우리만의 독도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혹시 아냐? 정말 너희들의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대표 커피 회사에서 이미지를 사가지고 갈지?”

“우와! 스타벅스에서 독도 이미지 쓴다면 최고겠는데요?”

“그렇지? 우리 싸이렌을 한번 넘어서 보자.”

선생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 말고 글로 표현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글씨도 좋고, 캘리그래피도 좋고 숫자도 좋고 독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되어도 좋아.”

사실 이렇게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교사(나 - 그림을 정말 못 그림)조차도 잘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학생들을 시키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왜 겠?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면 시간인데 학생들은 저 나름의 독도의 의미가 담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커피 회사에서 너희들의 작품을 쓸 수 있도록’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서는 학교 자체로라도 학생들의 작품을 상품화해서 알리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 연필, 볼펜, 싸인펜 만으로 만든 작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었다.

유명한 광고의 내용을 패러디해서 만든 아이, 독도 새우를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아이, 전 세계가 모두 아는 오징어 게임의 오징어를 독도 특산물이라고 딱 적어서 만든 아이, 일본에 의해 사라진 강치를 그리며 이제 강치는 세상에 없다고 독도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쓴 아이의 작품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독도의 생명체들을 두 컵에 담아내며 독도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며 이것이 정말 상품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더 잘 알지 않을까? 스타벅스 컵홀더를 모으듯이 독도 상품을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하며 내미는 캐리어에 태극기와 DOKDO KOREA가 그려져 있었다.

“아니야, 정말 잘했어. 아주 간결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표현했어!”

라고 해주니 아이는 안심하며 들어갔다. 사실 이 수업으로 학생들의 잘하고 못함의 서열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미안한 마음과 학생들이 가진 능력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주고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게 하는 학생의 말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너는 못했어”, “에이 그게 뭐니?”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서로 무엇을 표현하는지 물어봐 주고, 서로 웃고,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거의 수업이 끝나갈 즈음

“선생님, 저 다시 해도 돼요?”

“너 그림 멋있는데, 왜 다시 하려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좋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멋있지만 네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하렴.”

교사가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활동과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다. 그러고는 그 학생이 묻는다.

“선생님, 정말 우리가 만든게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는데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품으로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독도수업프로젝트 과정에서 독도 관련 굿즈 콘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대회에 내보내겠다고 하니 모두들 좋아하였다. 내심 한 작품이라도 꼭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독도 수업을 마쳤다.



〈독도 상품 만들기 수업〉



〈독도 상품 제작〉

■ 지리·역사·음악 독도 융합 수업-독립군가 음계로 독도 가사 만들기

중학교 3학년 사회에 나오는 단원인 XI.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독도 수업을 3차시로 구성했다. 지금까지 내가 참여했던 연수, 활동들의 기억들을 생각해가며 수업을 어떻게 짤지 고민을 하였다. 2010년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연을 시작으로 이후 나라 사랑, 독립운동, 지리 관련 연수들, 독도와 연관된 호사카유지 교수님의 강의들이 생각났다. 지루하지도 않고 수업 시간이 끝나고서도 독도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리와 역사는 당연히 함께하되 어느 교과와 융합하면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고 생각나고 먼 훗날에도 기억이 나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옛날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이 났다.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예술이다.’

그래, 미술로 동아리 수업을 했으니 이제 남은 음악으로 독도 수업을 해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자에는 아리랑만 들으면 하나가 되는 문화 유전자가 있듯이 독도의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를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하여 <지리·역사·음악 독도 융합 수업>, 부제로 「독립군가 음계로 독도 가사 만들기」 수업을 짜보기로 하였다. 사실 예전에 독도 관련 수업을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중가요인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하는 수업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받은 연수의 어떤 주제로 인해 내가 정말 무지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 번 다르게 수업을 해봐야겠다는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 사실 기쁘기도 하였다.

독도는 사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와 더불어 당시 항일 음악이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차시에는 독도의 지리, 역사적 가치, 일본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수업과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던 노래들이 일본의 전통음악 운율인 7·5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지독한 통치였던 문화통치 시절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통치 방법이였기도 했다는 사실 또한 인지시켰다. 지금 3학년들은 작년에 답임을 하고 지리, 역사를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독립운동사도 함께 가르쳐서 익숙한 내용인지라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특히 안동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의 합동사업으로 이루어진 교류 사업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들은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설명해 주는 등 순기능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활동을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충격이었던 점은 독도는 우리 땅 가사뿐 아니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오빠생각, 꽃밭에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불러온 노래들이 일본의 운율이었던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운율인 3·4조로 가사를 만들고 곡까지 붙이면 더 좋았겠으나, ‘나는 음악 교사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손우형’,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가사는 새로 만들되 곡은 기존에 있는 곡에 붙이기로 하였다.

2차시는 독도 가사 만들기과 곡을 붙일 노래를 듣는 것이었다.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넣고 싶어서 여러 항일 음악들을 찾아보았다. 안창호 선생의 격검가, 안중근 의사의 옥중가 등을 살펴보았으나, 일단 가르치는 교사인 나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노래들이었고 사실 학생들에게도 어려웠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가로도 쓰이고 널리 불렸던 독립군가 음에 가사를 붙이기로 하였다. 사실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곡이기도 했으며 오히려 널리 배포하면 더 좋다

는 말에 이 곡을 쓰기로 했다. 나는 이 곡을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곡이라 육군에서 가수와 함께 부른 영상을 들려주었고,조를 3개로 나누어서 독도의 이야기가 들어간 가사를 1절씩만 만들어서 3절까지 불러보라고 하였다.

“선생님. 어떤 내용이어도 상관없어요?”

“응, 독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랄도 괜찮아.”

“선생님, 꼭 사실만 넣어야 해요?”

“네가 넣고 싶은 건 뭔데?”

“욕을 넣고 싶어요!”

“음. 음악이라는 건 사람들의 감정을 분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욕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무슨 욕인데?”

“왜놈이요.”

“음, 그 정도는 넣어도 될 것 같아. 실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중들이 우리의 울분을 분출하기 위해 일본 사람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감정이나 지금의 정치 상황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 어떤 것도 관계없어. 너희들이 가사로 독도를 표현하면 돼. 지리적 내용도 좋고 역사적 내용도 좋고, 너희들이 느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어도 되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의 비판이어도 좋아. 독도에 살았던, 또는 사는 동물, 식물들도 넣어도 좋고, 정 어렵게 느껴지면 독립군가의 가사를 차용해도 돼.”

“선생님, 리앙쿠르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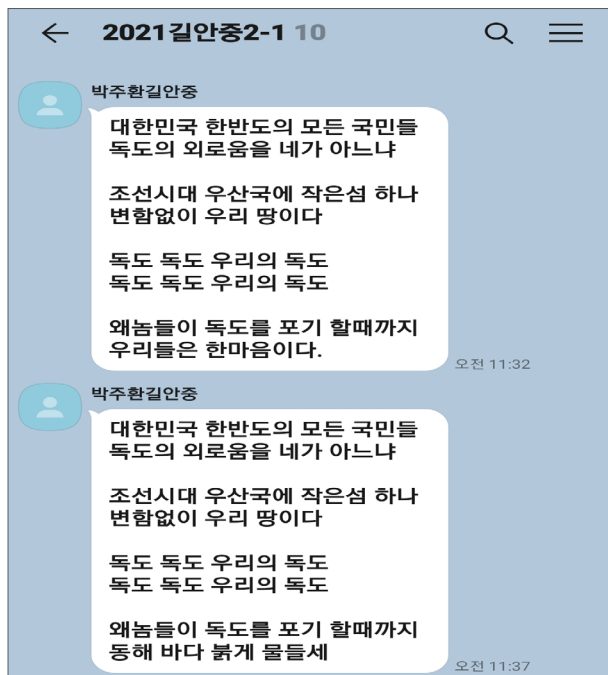
“프랑스의 고래잡이배야. 1841년 독도를 발견한 배인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지도에서 보지 못한 암초라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독도를 리앙쿠르 섬이라고 부르고 있고, 일본의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서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분명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인데 말이지. 전 세계 지도에 독도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게 가사 만들어 볼까?”

“선생님, 근데 무주지 선점론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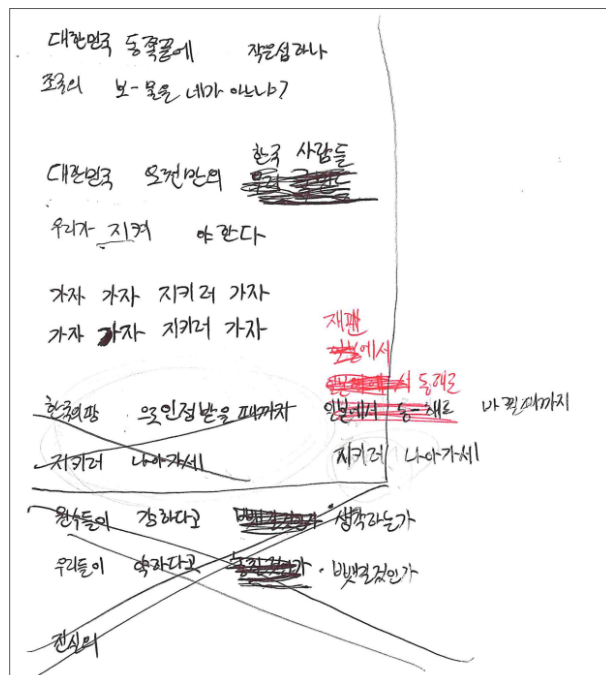
“아. 쉽게 말해서 임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라고 우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자신이 속한 조원들과 의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이런 가사를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 가사를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요”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조들을 돌아다니기만 하였고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아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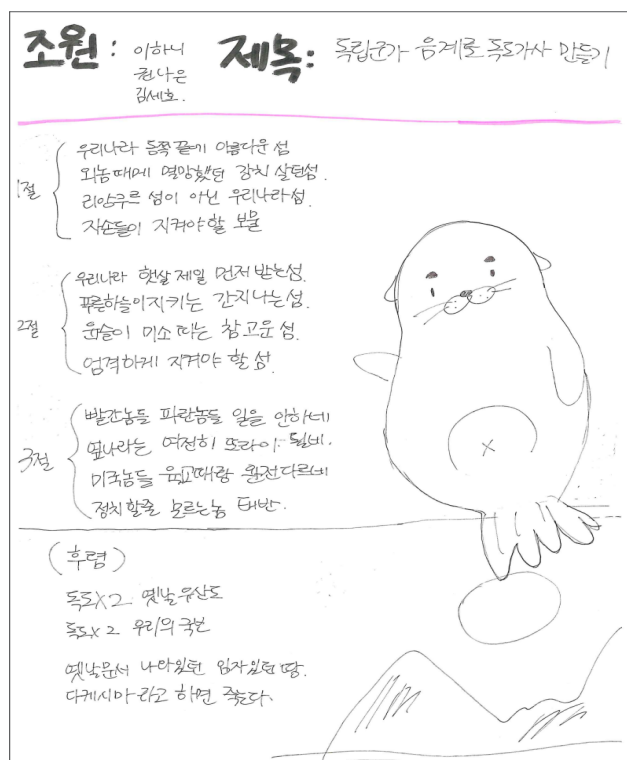
학생들의 독도 가사-



〈휴대폰이 더 익숙한 아이들. 가사를 지으면서 바로 카톡으로 남겨주었다.〉



〈많은 생각과 노력이 옛보인 조다.〉



〈각 조별로 1절씩만 가사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교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고 조원들과 자료를 찾으며 3절까지
만들고 예쁜 강치까지 표현하였다.〉

독립군가 영상을 봤던 영향이었을까? 학생들의 의견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더 쏟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가사만 만들고 독립군가 음에 맞게 한 번 불러 보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의견을 내니,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준웅이가 반주를 하겠다고 한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악보 보고 한번 붙여 보면 돼요.”

“당연히 돼요. 선생님.”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G 레시온	V 라 라 [#] 레	G 레시온	C 소미즈	G/B 라 레	G 레시온
C 소미즈	D 라 라 [#] 레	D 라 라 [#] 레	G/B 소 레	C 소미즈	
G/B	G/B	A/C	D	G	
소 레 시	소 레 시	미 라	라 라 [#] 레	레 시 온	
G	G	C	G/B	G	
레 시 온	레 시 온	소 미 즈	소 레 시	소 미 즈	
D	A	G	C	G/B	
소 레 시	라 라 [#] 레	레 시 온	소 미 즈	소 레 시	
G/B	D D	D	G	G	
소 레 시	라 라 [#] 레	라 라 [#] 레	레 시 온	레 시 온	

독립군가

작사자 미상 / 앤리 워크 작곡

Allegretto

신원니업 한물거강 국이든과 독립복두 린하림안 린다관장 의고의를 백건옹위 만을사이 웅변가진 사견되려 아가고라 조우나약 군들이독 이의면한

부악독원 트하림수 심다관무 올고의리 네네훈술 가선령어 아열이를 느건림아 나가이라 삼정동왕 천의지었 리의야만 삼불너조 천제와가 막칼나강 이의의산

우비소회 리까원복 등논아하 포츠니는 들에나날 건이빛만 질길짐세 이리니를 너너니를 외외와 나나나러 로로로로보 다다다세 — 나

가 나 가 — 싸 우러 나 가 나 가 나 가 —

싸 우러 나 가 독 립문 의 자 유증 이 울 릴 때 까

지 싸 우 러 나 — 아 — 가 세

-항일음악; 압록강 행진곡, 안중근 옥중가, 경성, 격침가(안창호 작사)기쁨의 아리랑

22 | 좋은 Gyo6 나눔

드디어 대망의 3차시 수업이 다가왔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쉬는 시간에 미리 음악실로 아이들이 올라가 있었다.

학생들도 기대하는 수업이라는 의미일까?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나는 종이 찢 후에 음악실로 올라갔다. 2층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저 끝에 있는 음악실 문틈 사이로 연주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뭐지? 왜 이렇게 잘 하지? 왜 이렇게 멋있지? 가슴이 뛰는 걸까?’ 하며 문을 여니 아이들이 어떻게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지 구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연주에 친구의 연주를 같이 엮고 또 다른 친구들의 노래를 더하여 정말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음악실에서 일렉트로닉 작업하고 있는 학생〉
-친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화음을 붙이고 있는 학생들〉

인생의 묘미는 변수에 있고 음악의 묘미는 변주에 있지 않을까? 생각지도 않았던 학생들의 연주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가사를 곡으로 재구성하니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연주를 하는 학생들의 합을 맞추어보고 어떤 연주를 어떻게 배치할까를 고민하고 세 조의 노래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 순간 주뻔주뻔하는 학생이

“선생님,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장례식장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괜찮아. 음악 시험이 아니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없어. 너희들이 독도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만든 가사를 직접 불러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잘 못 불러도 되나요?”

“당연하지. 사실 나도 노래 못 불러.”



학생이 피식 웃는다. 다행이다.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나는 안도했다.

사실 교사인 나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예술 분야를 4시간에 걸쳐서 함에도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리, 역사, 음악 융합수업의 [독립군가 음계로 독도 가사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

만들어진 이 영상은 독도 콘테스트에 제출하겠다고 너희들 모두 동의할 수 있겠냐 물으니 당연히 된단다. 만약, 정말 만약에 입상하면 상금이 있냐고 묻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그래, 상금이 있단다. 만약에 입상해서 상금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다 줄게.”

“우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보다 교사인 나에게 배움을 더 주는 것 같다.

이 세상은 1+1=2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 한 명 한 명 더해져 9명뿐인 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90명을 능가하는 정도의 결과물이었다.

독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알게 모르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지리와 역사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과 같이 붓을 이기지 못하듯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의 시간과 함께 한 음악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 음악이라는 존재를 학생들에게 알게 해 준 것만 해도 나름 큰 성과라고 여겨진다.

아마 아이들은 까먹을 것이다. 아니 까먹어도 좋다. 이렇게 뿌린 나의 씨앗이 언젠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입가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아름다운 섬”이라는 가사를 흥얼거리고 “우리나라 햇살 제일 먼저 받는 섬”이라는 가사가 내 귓가에 맴도는 것 보니 분명 아이들도 자신들이 만든 가사를, 자신들이 연주한 이 곡을 기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처음엔 부담으로 다가왔던 독도 프로젝트 수업을 4시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 항상 지나고 나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지만, 학생들의 더 좋은 의견과 나의 고민으로 내년에는 어떤 수업을 또 해볼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수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영상은 정말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마친다.

